

아동소비자의 용돈관리행동과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김 효 정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교수)

가계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가정의 자녀수가 감소되면서 오늘날 아동은 자유재량 소비액이 증가되어 독립적인 소비활동을 하는 소비자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조사에 의하면 아동들의 불건전한 소비태도나 가치관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어린 시절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평생의 습관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동초기부터 건전한 소비생활의 습관을 길러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소비자의 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과 올바른 구매행동을 위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의 용돈관리행동과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경남 김해시 초등학교 2개를 표집하여 4, 5, 6학년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배부한 후 스스로 기입토록 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0년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부실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여 507부의 응답이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아동소비자의 용돈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아동의 성별, 용돈의 지급주기(매일매일, 한 달에 2~3번), 용돈 받기 전 용돈 액수의 파악 유무, 용돈 사용 전 부모의 지도 유무, 소비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의사소통 정도, 부모의 대중매체에 대한 중재 정도가 아동소비자의 용돈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약 19%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동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용돈에 대한 만족도, 용돈 사용 전 부모의 지도 유무, TV 시청량, 소비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의사소통 정도, 그리고 용돈관리행동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7%이었다. 이들 결과를 기초로 아동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무의미한 변수를 배제한 후 새로운 모형으로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아동의 성별, 용돈지급 주기(매일 매일), 용돈 받기 전 용돈액수의 파악 유무, 부모의 대중매체에 대한 중재 정도는 아동의 용돈관리에 간접효과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그리고 용돈을 매일매일 지급받거나, 용돈을 지급 받기 전에 용돈의 액수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경우, 또한 부모가 아동의 TV 시청을 많이 통제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용돈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아동이 구매행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TV 시청량과 용돈액수에 대한 만족도는 매개변수인 용돈관리행동에 관계없이 아동의 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돈 사용 전 부모의 점검 유무, 소비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의사소통 정도는 아동의 구매행동에 직접효과와 용돈관리행동을 통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용돈관리행동의 구매행동에 대한 총효과는 정적 상관관계($r=.342$)를 보이며, 용돈관리행동 자체가 독립적으로 정적인 직접효과(.239)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용돈관리를 잘 할수록 보다 합리적인 구매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있어서 용돈관리행동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